

## 금호타이어 사태, 기아차 불똥

### 타이어 공급 안돼 스포티지R 400대 생산 차질

금호타이어의 파업 사태가 기아차 동차로 불똥이 튀었다. 타이어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기아차 인기차종인 스포티지R의 생산라인이 멈춘 것이다. <관련기사 8면>

2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로 공장 가동이 나흘째 중단되면서 기아차에 공급하던 17인치 타이어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기아차 광주2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R의 생산라인이 4시간 멈췄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스포티지R에 장착되는 17인치 타이어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이날 생산물량 중 스포

티지R 400대의 생산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주간조(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와 야간조(새벽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의 공장 가동이 각각 2시간씩 중단돼 스포티지R 168대를 생산하지 못했다. 기아차는 타이어 수급 상황에 따라 하루 단위 라인 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의 거래선 변화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타이어 수급 차질로 이날 한때 생산라인이 멈췄다"며 "매일 타이어 수급 상

황을 파악해 가동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의 파업 사태가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광주경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스포츠지R의 경우 16인치와 18인치 타이어도 장착되기 때문에 17인치 금호타이어의 수급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지역경제의 주축인 금호타이어와 기아차의 동반 성장에는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원기자 jwpark@kwangju.co.kr



수양버들 늘어진 교정의 봄

봄기운이 완연한 2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의 수양버들이 긴 가지를 수면 위로 늘어뜨린 채 초록빛을 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U대회 선수촌 이번주 중대고비

### 일부 시민단체 반발 속 시의회 동의안 처리 여부 주목

민선 5기 최태현안인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조성사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선수촌 준공시기가 2015년 상반기로 못박혀 있는데다 재건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 주민이주, 철거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최근 선수촌 조성사업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이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와 현대건설 간 협약 조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광주시의회도 '2015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나서는 등 선수촌 조성사업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 내 동의안이 처리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화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시청과 시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선수촌 조성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송 부시장은 "미분양에 대한 보증

액은 최대 580여억원 정도로 제한된다"며 "무한보증을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은 또 "민선 5기 출범 이후 도급순위 50위권 내 건설업체와 모두 협상을 거친 만큼 특정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해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간신히 현대건설과 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도 이날 "조합원들은 일반 매매가 보다 낮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 청산을 하느니 어떻게 해서라도 분양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미분양에 따른 광주시의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라며 "조합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광주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7일 "무한책임 보증방식, 다른 건설업체의 참여 미흡, 특정업체와 사전 조율 의혹 등에 대해 광주시가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지역 국회의원 재산 변동 들여다 보니

- ▲강기정(17, 18대) 4600만원→7억7400만원
- ▲김동철(17, 18대) 5억8500만원→17억4800만원
- ▲김성곤(15, 17, 18대) 8500만원→5억3500만원
- ▲김영록(18대) 5억9300만원→7억7300만원
- ▲김영진(13, 14, 15, 16, 18대) 1억7800만원→15억6500만원
- ▲김재균(18대) 9억6300만원→14억3300만원
- ▲김효석(16, 17, 18대) 52억원→70억9000만원
- ▲박상천(13, 14, 15, 16, 17대) 17억4000만원→53억3800만원
- ▲박주선(16, 18대) 17억1700만원→20억6200만원
- ▲박지원(14, 18대) 28억2000만원→15억9500만원

- ▲우윤근(17, 18대) 16억6000만원→22억8600만원
- ▲유선호(15, 17, 18대) 4억4600만원→18억6600만원
- ▲이낙연(16, 17, 18대) 4억4000만원→12억4800만원
- ▲이용섭(18대) 12억5900만원→13억7700만원
- ▲이윤석(18대) 13억2300만원→10억4300만원
- ▲장병완(18대 보선) 76억6400만원→76억8800만원
- ▲조영택(18대) 41억9600만원→37억3200만원
- ▲주승용(17, 18대) 33억9300만원→46억4000만원
- ▲최인기(17, 18대) 24억2400만원→88억5000만원

## 7명이 10억 이상 늘어...최인기 +64억 최고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급속한 재산 증가는 지역 민심에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 당시 등록 재산과 현재의 재산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됐다.

우선,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최인기, 김효석, 김동철, 주승용, 박상천, 김영진, 유선호 의원 등 7명으로 집계됐다.

재산의 최인기 의원은 17대 국회 입성 당시 24억24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으나 올해 신고액은 88억5000만원으로, 그동안 64억2600만원이 늘어나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 증가액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측은 보유 주식까지 상승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3선의 김효석 의원은 16대 국회 입성 당시 5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올해 등록한 재산은 70억9000만원으로 그동안 18억원대의 재산이 늘어났다.

5선의 박상천 의원은 18대 국회에 서만 14억6000만원(38억7000만원→53억3000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지난 13대부터 국회에 진출한 박 의원은 14대 국회(1993년)에서 재산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17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 그동안 3배 이상

(35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선의 유선호 의원은 올해 18억6600만원을 신고, 15대 국회(4억4600만원)때 신고분에 비해 14억원 이상 늘어났다.

재산의 주승용, 김동철 의원도 17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33억9300만원, 5억85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지만 올해는 46억4600만원, 17억4800만원을 신고, 각각 12억5000만원, 11억60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2면으로 계속  
/\*원현석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2011 세계 7대 자연경관

2002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 세계지질공원 인증

## 전화기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세계 7대 자연경관 대한민국의 꿈,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 분야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도가 마침내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합니다. 국가브랜드를 한 차원 높일 절호의 기회, 대한민국이 당신의 한 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투표 방법  
001-1588-7715 를 누르고, "빠~" 소리 후 7715(제주 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투표 방법  
한글로 제주, 영문으로 jeju 또는 JEJU 라는 문자를 작성하여 001-1588-7715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단, 문자투표는 4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인터넷투표 방법  
www.jeju7w.com 접속, 인터넷투표하기에서 투표하러 바로가기를 클릭, www.new7wonders.com의 창이 뜨면 투표하시면 됩니다!  
→제주도 등 7개 후보지 선택 →회원등록 →수신 이메일 확인  
→링크 →투표 완료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Press Foundation

Jeju 7W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